

면사무소의 소재지인 소태리는 백암온천의 이용 편의도모를 위해 88번 지방도와 920번 지방도가 교차하고 있으며, 면의 중앙에 해당하는 교차지점에는 호텔, 콘도미니엄 등 숙박시설, 기업체 연수원, 목욕탕, 음식점, 주점, 상가 등을 비롯한 다양한 숙박, 위락시설이 입지하고 있다. 아울러 이들 주변에 민간 취락이 넓게 분포하고 있다. 소태리에는 현재 온정면 전체 인구 1,846명의 29.3%인 542명이 거주하고 있다. 여기에 관광객 즉 유동인구를 위한 시설까지 합치면 마을의 규모가 매우 방대하다고 볼 수 있다.

소태리에 인접한 온정리는 백암온천 일대의 920번 지방도 변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다. 이곳도 역시 소태리와 연접하여 숙박시설·목욕탕·음식점·주점·상가 등 집단 위락시설이 밀집돼 있다. 온정리의 남쪽 조금리는 넓은 산악에 면해 있어 백암산성, 고모산성터와 온정광산이 있는 곳이며 신선계곡을 중심으로 산림생태탐방로가 조성되어 있다.

온정면의 동쪽 평해읍, 후포면과 근접한 곳에 광품리, 금천리, 덕인리, 덕산리 등이 있다. 이들 지역은 도로와 병행해 흐르는 평해 남대천의 수계를 따라 취락이 점점이 분포하고 있는 특징을 보인다. 온정면 북서쪽 오지의 산수가 아름다운 외선미리와 선구리에는 평해 남대천의 지류인 소태천 일대 농경지 주변에만 두 마을의 취락이 집중 분포되어 있다. 최근 백암산이 빛은 신선계곡이 등산로와 공원으로 조성되면서 등산객들로부터 주목받고 있다. 또 영양군과 경계를 이루며 영남 내륙으로 이동하는 구주령은 옛길 원형이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어 울진군은 이곳 구주령 일대에 대한 생태관광 명소 조성을 계획, 추진하고 있다.

## 제2절 취락의 성장과 전망

울진군은 중심도시인 대구에서 볼 때, 경상북도의 기장 북단에 위치하여 지리적으로 가장 외지에 있으며, 산악이 험준하여 동해안에 연접한 7호선 국도가 남북을 잇는 유일한 도로망이다. 울진군의 서쪽은 산악지형이 발달해 도로망이 매우 열악하여 36호 국도와 88 지방도가 영남 내륙을 잇는 유일한 도로망이다, 또한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될 만한 지하자원이나 산업시설이 부족해 지역발전에 제약이 따른다. 반면 울진군은 수려한 자연경관을 중심으로 관광산업의 무한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며, 이 또한 오염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어서 관광객의 유인력이 매우 높다. 따라서 기존의 관광 시설을 정비, 보완하고, 특히 금강소나무숲 등 산림자원과 바다 먹거리 등 해양관광자원을 활용한 먹거리와 케어·힐링 관광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함과 동시에 아울러 농업, 어업, 임업 등 지역의 특성산업과 연계하면 2030년대 울진군의 전망은 매우 밝다.

울진군의 각 읍·면의 성장 또한 관광산업을 중심으로 한 개발 가능성의 차이에 따라 달라

질 것이다. ‘2030 희망울진 울진군장기종합개발계획’에서도 예측했듯이 관광 개발 및 개발촉진지구개발, 교통망 확충, 해안 및 항구 개발, 정주생활권 개발 등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 지역별 인구 증가와 경제성장은 다소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미미한 수준이며, 궁극적으로는 성장의 효과가 전 지역에 파급되어 울진군 전체의 균형 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sup>14</sup>

울진군 지역개발의 핵심은 관광산업이다. 최근 울진군을 찾은 관광객 수는 연간 거의 1,000만 명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울진군이 산악, 온천, 해변으로 구성된 다양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객의 60%가 백암온천, 덕구온천 등 온천지역을 찾는 관광객이다. 반면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은 5% 수준에 불과하다. 결국, 울진군은 천혜의 해수욕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에서의 거리가 멀어, 남쪽의 영덕군이나 포항시의 해수욕장에 비해 경쟁력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대도시 주변의 무분별한 온천개발로 온천관광 또한 매력을 잃어가고 있다. 결국, 울진군 관광 개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구 등 대도시 지역과의 접근도 제고가 관건이며, 동해안 고속도로 개설, 동해중부선 2차선 전철화와 내륙을 잇는 36호 국도의 4차 선화 및 동서철도 개설이 관건으로 떠오른다.

아울러 온천, 계곡을 찾는 특수 목적의 관광수요와 연계하여 풍부한 바다 자원을 기반으로 한 특화 먹을거리 레시피와 해양·산림자원을 활용한 치유 힐링 관광프로그램 등 휴식 중심의 종합관광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우리 국토는 무분별한 개발로 심각한 환경 오염에 시달리고 있다. 오염되지 않는 청정한 자연자원이 앞으로는 가장 가치 있는 관광자원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잘 보전되어 온 울진군의 자연이야말로 미래의 생태관광에 부합하는 관광자원이니만큼, 무분별한 개발보다는 개발과 보전이 같이 이루어지는 환경 친화형 관광 개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14. 울진군, 2014, 『희망울진2030 울진군장기종합계획』, 한국지방행정연구원